

2018년 7월 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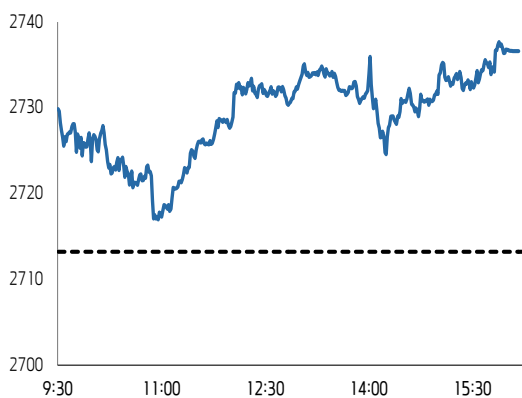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유럽증시는 메르켈 총리와 미국의 주독 대사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자 폭스바겐(+4.05%), 다임러(+3.76%) 등 자동차주가 상승 주도. 미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술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주도. 더불어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 여파로 과도한 상승을 했다' 라고 언급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한편, 미국-EU 간 자동차를 둘러싼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상승 요인(다우 +0.75%, 나스닥 +1.12%, S&P500 +0.86%, 러셀 2000 +1.15%)

미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최근 마이크론은 중국 법원이 일부 부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하락. 그러나 관련 제품이 마이크론 매출의 약 1%에 해당된다는 점이 부각되자 반등에 성공. 더불어 판결 이후 D 램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편,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개별 사건일 뿐 무역분쟁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라고 주장.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2% 상승. 한편, 중국 스마트폰 판매 동향에서 5 월에도 개선세가 지속돼 2 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0~15% 판매 증가 전망. 이에 힘입어 일부 투자회사는 3 분기에도 긍정적인 판매 동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자 애플 관련주도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상승.

이러한 반도체 등 기술주의 강세와 더불어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줌. 연준이 의사록을 통해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 이라고 주장하고, 하반기 GDP 성장률에 대해 하향전망 하자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 한편, 무역분쟁과 관련 우려를 표명. 연준 위원들은 "무역 분쟁이 확대된다면 기업들의 투자와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 의사록 공개 직후 금융시장은 변화를 보이기도 했으나 곧바로 안정을 찾는 등 변화는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257.55	-0.35	홍콩항셱	28,182.09	-0.21
KOSDAQ	794.05	-0.63	영국	7,603.22	+0.40
DOW	24,356.74	+0.75	독일	12,464.29	+1.19
NASDAQ	7,586.43	+1.12	프랑스	5,366.32	+0.86
S&P 500	2,736.61	+0.86	스페인	9,866.20	+1.11
상하이종합	2,733.88	-0.91	그리스	748.57	+0.56
일본	21,546.99	-0.78	이탈리아	21,914.29	+1.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마이크론(+2.64%)은 중국의 법원 판결 관련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1%에 그친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했다. 더불어 중국 외교부가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무역분쟁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자 인텔(+2.59%), 퀄컴(+3.71%), TI(+2.39%), AMAT(+1.43%), 램리서치(+2.73%)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다. 넷플릭스(+2.02%)는 인도에서 시리즈물을 발표하자 상승했다.

중국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전분기 대비 10~15%, 3분기 또한 10~15%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애플(+0.80%)이 상승했다. 특히 애플의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추정한다. 이에 힘입어 큐로브(+5.66%), 스카이웍(+4.40%), 브로드컴(+2.55%)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페이스북(+2.97%)은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했다. 알파벳(+2.24%)도 동반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14%	대형 가치주 ETF	+0.60%
에너지섹터 ETF	+0.08%	중형 가치주 ETF	+0.70%
소매업체 ETF	+1.15%	소형 가치주 ETF	+1.13%
금융섹터 ETF	+0.23%	배당주 ETF	+0.66%
%기술섹터 ETF	+1.71%	변동성 ETF	-3.32%
소셜 미디어업체 ETF	+1.16%	대형 성장주 ETF	+0.99%
인터넷업체 ETF	+1.44%	중형 성장주 ETF	+0.95%
리츠업체 ETF	+1.31%	소형 성장주 ETF	+1.24%
주택건설업체 ETF	+1.24%	신흥국 고배당 ETF	+0.38%
바이오섹터 ETF	+1.2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1%
헬스케어 ETF	+1.04%	하이일드 ETF	+0.40%
곡물 ETF	-0.06%	물가연동채 ETF	+0.12%
반도체 ETF	+2.70%	Long/short ETF	+0.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5.97	-0.16%	-0.47%	-0.26%
소재	364.28	+0.96%	+0.84%	-4.31%
산업재	604.07	+0.51%	+0.69%	-5.11%
경기소비재	871.29	+0.56%	+1.05%	+0.17%
필수소비재	534.97	+1.46%	+1.13%	+4.83%
헬스케어	981.50	+1.05%	+1.95%	+0.54%
금융	440.41	+0.23%	+0.56%	-4.87%
IT	1,231.58	+1.46%	+2.16%	-2.99%
통신	150.79	+0.40%	+3.49%	+1.88%
유틸리티	267.74	+0.63%	+1.70%	+9.75%
부동산	204.60	+1.36%	+2.37%	+4.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삼성전자 실적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23% MSCI 신흥 지수도 0.26% 하락 했으나, 시간외로 소폭 상승 중이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41 계약) 에도 불구하고 1.00pt 상승한 293.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8.6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을 예상한다.

주목 미국 대사에 이어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협상을 통해 EU 의 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중국 외교부가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일 뿐 무역분쟁과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미국-EU,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에 대해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글로벌 증시는 상승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우호적이다.

한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강세도 미 증시 상승 요인이었다. 이는 최근 미국 증시의 특징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2 분기 실적 결과가 중요하다. 시장 예상 보다 개선된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국 증시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하는 등 여전히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는 투자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반등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트럼프의 발언과 재고 증가 여파로 하락 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부담 요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지수 개선

미국 6 월 ADP 민간 고용자수는 전월(18 만 9 천건) 보다 감소한 17 만 7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 만 8 천건) 보다 증가한 23 만 1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수치는 지난주(22 만 2,250 건) 보다 소폭 증가한 22 만 4,500 건으로 발표 되었다.

또한 6 월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3 만 1,500 건) 보다 증가한 3 만 7,200 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완전고용에 가까워져 미국의 고용 개선이 제한될 것이라는 연준의 발표와 상통한다.

6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8.6) 보다 개선된 59.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고용지수 (54.1→53.6)가 둔화되었으나, 신규수주(60.5→63.2)와 기업활동지수(61.3→63.9)는 개선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OPEC 에게 '당장' 원유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하자 하락 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보도 또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EIA 가 지난주 원유재고가 124 만 5 천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지난주 989 만 배럴 감소와 시장 전망치인 520 만 배럴 감소를 크게 상회한 결과다.

달러지수는 고용지표 둔화 및 미-EU 간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FOMC 의사록 공개 후 약세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한편, 유로화는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약세로 전환 했다. 신흥국 환율은 대부분 달러 대비 1.5% 내외 강세를 보인 반면, 중국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23%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보험권 혼조세를 보였다. 장 초반 서비스업지수 개선과 고용지표 둔화 여파로 보험권에서 출발한 국채금리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중간의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장기물은 하락 전환 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는 미-중간의 무역분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했다. 여타 비철금속 또한 동반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철근도 0.3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94	-1.62	+0.25	Dollar Index	94.421	-0.12	-0.93
브렌트유	77.39	-1.09	-0.28	EUR/USD	1.169	+0.28	+1.05
금	1,258.80	+0.42	+0.21	USD/JPY	110.64	+0.14	+0.14
은	16.097	+0.34	-0.86	GBP/USD	1.3221	-0.07	+1.09
알루미늄	2,080.00	-0.43	-3.48	USD/CHF	0.9935	+0.05	-0.40
전기동	6,345.00	-0.64	-4.20	AUD/USD	0.7386	0.00	+0.46
아연	2,700.00	0.00	-6.80	USD/CAD	1.3140	-0.02	-0.82
옥수수	364.50	+0.07	-2.34	USD/BRL	3.9295	+0.40	+1.76
밀	505.50	+2.95	+3.48	USD/CNH	6.6581	+0.22	+0.33
대두	855.75	-0.98	-3.74	USD/KRW	1118.60	+0.37	-0.50
커피	109.15	-2.46	-7.07	USD/KRW NDF 1M	1118.62	+0.28	-0.2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33	+0.18	-0.38	스페인	1.325	+2.90	-3.60
한국	2.549	0.00	-1.10	포르투갈	1.794	+4.90	-2.60
일본	0.038	+0.90	+0.20	그리스	4.002	+6.20	-1.50
독일	0.299	-0.60	-2.00	이탈리아	2.725	+7.40	-5.00